

환경汚染 대책 밝히라 資源稅 신설 中央건의

질의
답변

국회보사위(위원장 辛相佐)가 23일 도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산수원의 자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보사위가 국감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간

에 갈등대립으로 정화사태가 빚어지는 소동속에 밤 10시 40분까지 무려 1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출산폐수·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한 산수원 오염 ▲설악산자연환경오염 ▲시멘트·석탄부진공해 ▲산림개발부양자의 환경영향평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金文起의원(민정·명주·양양)은 「주문진·속초한탄이서해안보다 많이 오염됐다」며 동해안정화대책을 묻고 「관청자들이 마구 버리는 각종오염물과 점차오염패가 수도권제1외곽환경개선특별회계로 흐른 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申喆堦의원(무속)은 「수자원 관리자원의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나 타지역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었다」며 자원세신설을 촉구하고 「강원도를 환경오염방지의 시범도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또 민정당의 安樂基의원(제천·간성)은 「전도의 노인우대제가 노인친대제가 되었다」며 정책개선을 위한 지방기과의 견해를 묻고 원주시 청천원이전 대책과 가두리양식장과 송양강의 오염수정화시설신설을 밝히려고 요구했다.

원민당의 李喆鎔(시흥·동갑)·朴英淑의원(무민·산수원인)은 수인간담을 중점적으로 물고 물고가는 가두리양식장을 폐쇄조치하고 정선지방의 하천오염원인 파관림과 산양강의 산양관개수로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원민당의원들이 산양개관

시멘트와 쌍용시멘트부진공해를 따지고 「단원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의 진폐증검사를 업체부담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鄭基榮의원(원민)은 「내년에 건설예정인 속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산이 삭감됐는데 청송호수오염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李相龍지사는 「자원세신설을 위해 최근 중앙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산림개발부양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7년 계획자제가 교통부로부터 승인취소됐기 때문에 반지 않았다」고 말했다.

李지사는 속초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것이 확인됐다고 해 경향마침표와 합동으로 영안하천오염방지에 힘써 동해안 항구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洪淳鎬도산부정인 을해소양호가두리양식장에서 폐사한 고기는 70여t으로 수몰선이하에 매몰해 호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암시장 신규허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